

모든 청소년은  
즐거울 권리가 있다

# 편그라운드 진접

**신호섭, 신경미**  
신아키텍츠 공동대표

## 개요

위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23
용도	청소년수련시설
대지면적	1,429m <sup>2</sup>
건축면적	772m <sup>2</sup>
연면적	3,122m <sup>2</sup>
규모	지상 4층, 지하 1층
주차	14대
높이	19.2m
건폐율	54.03%
용적률	156.65%
구조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알루미늄 곡면 시트, 컬러강판, 제물치장콘크리트,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자작나무합판, 노출콘크리트, 코르크바닥재, 마천석
설계	신아키텍츠(신호섭, 신경미)
설계담당	이나영, 김정민, 이미소, 강지영, 용상아
구조설계	더원구조엔지니어링
시공	경현종합건설
기계설계	주성ENG.
전기설계	건창기술단
조경	스튜디오 테라
설계기간	2020.6.~2021.4.
시공기간	2021.5.~2022.6.
준공	2022.7.
예산	91억 원
공사비	110억 원
건축주	남양주시



핀그라운드 진점 전경

펀그라운드 진점은 기존의 청소년시설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나가는 문화 거점 시설이자 아이트로서 건강한 교류와  
즐거움이 가득한, 열린 플랫폼을 만드는 과감한 시도이다.



매끈한 곡면 루버와 판넬이 특징적인 전면부





생동감으로 충만한 라운지



◎ 지하수



◎ 지하수



◎ 지하수

상 워크스테이션  
하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한 언더그라운드



© 건축사



© 건축사

상 편그라운드 휴게공간  
하 낮선 공간의 경험을 유도하는 실린더



정해진 등선이 없는, 다양한 높낮이의 공간



공간 경험의 축적은 개개인의 부와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건축은 좋은 공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문화적 합의와 토대를  
영양분 삼아 자라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건축은 이런 과정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공간 경험 축이다.



©진효숙

측창과 천장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실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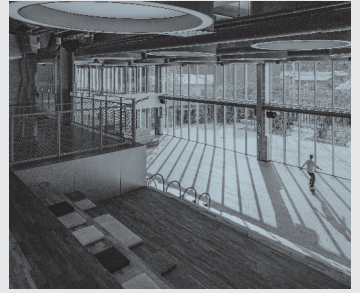
## 장소

편그라운드 진접이 위치한 곳은 예전에 진접읍사무소가 있던 자리이다. ‘읍내통’이라고 불리던, 그래도 진접에서는 꽤나 붐비던 중심가였을 것이다. 그 뒤로 읍사무소는 사라지고 진접의 변화가인 장현로는 오일장으로 명맥을 이어가며 구도심의 중심을 지켜 왔지만 점점 더 활기를 잃어 갔다. 왕숙천 너머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도시의 무게추가 조금 더 기울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활력이 없어지는 도시들이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은 떠나고, 장소는 추억이 되어 유령처럼 너리에 떠돈다. 회복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럴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장소를 원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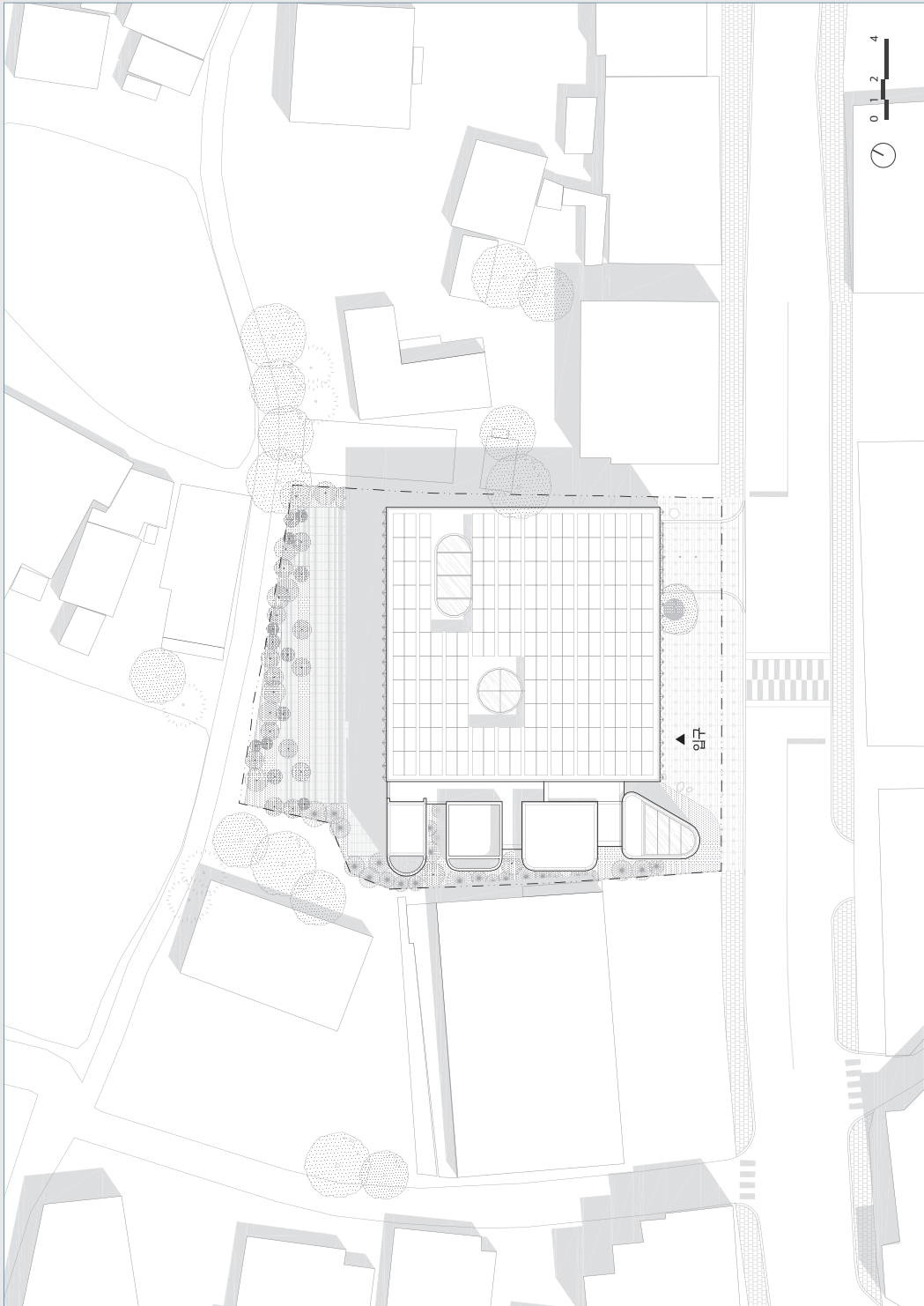
## 청소년

집에서 학교로, 다시 학원으로 떠났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어떤 루틴이 이보다 더 지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행복한 걸까? 학업을 잘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소외된 계층일 수도 있다. 돈지갑을 열어 봐야 PC방, 저렴한 커피숍에 가거나, 아니면 구석진 놀이터 그네라도 타야 한다. 갈 곳이 없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해 당연하게 ‘자본’을 쓰지 않는다. “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자 주역이다”라고 어른들은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렇기에 공부에 힘쓰라는 마무리가 대부분이지 일상에서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일정 나이까지 투표권도 없어 자신들의 요구나 의견을 표현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가 충분히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곧 어른이 될 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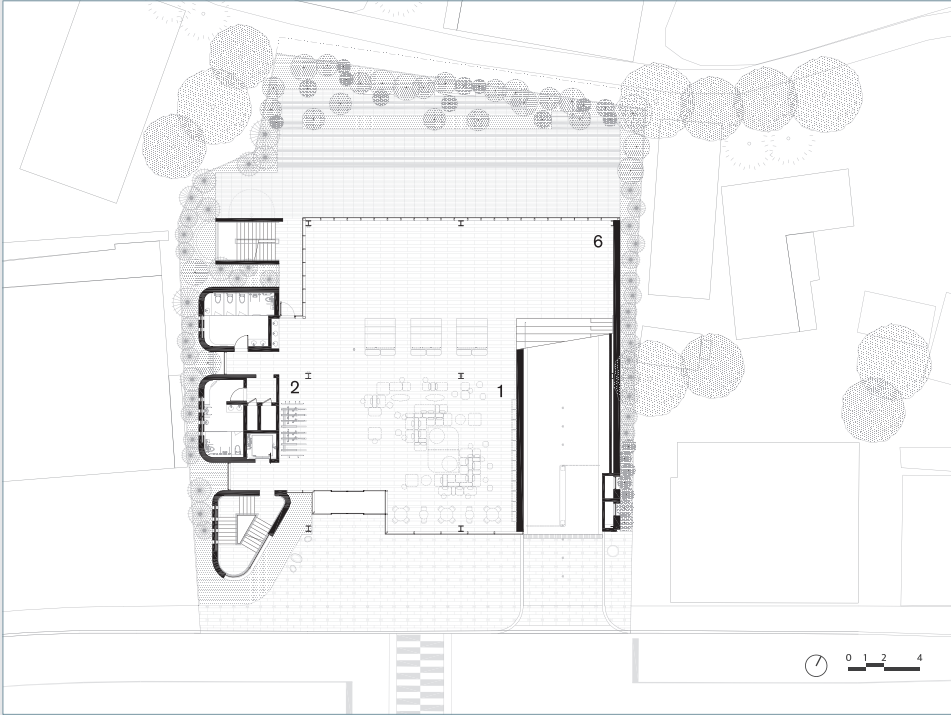
© 121 건축



상 편그라운드 진접 전경  
중 생동감으로 충만한 라운지  
하 워크스테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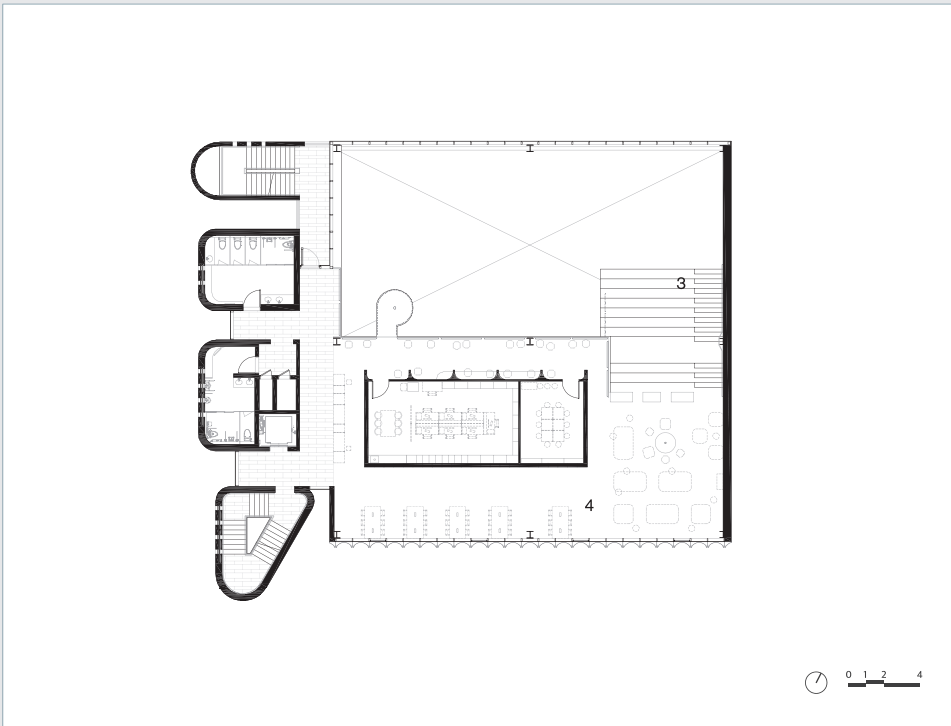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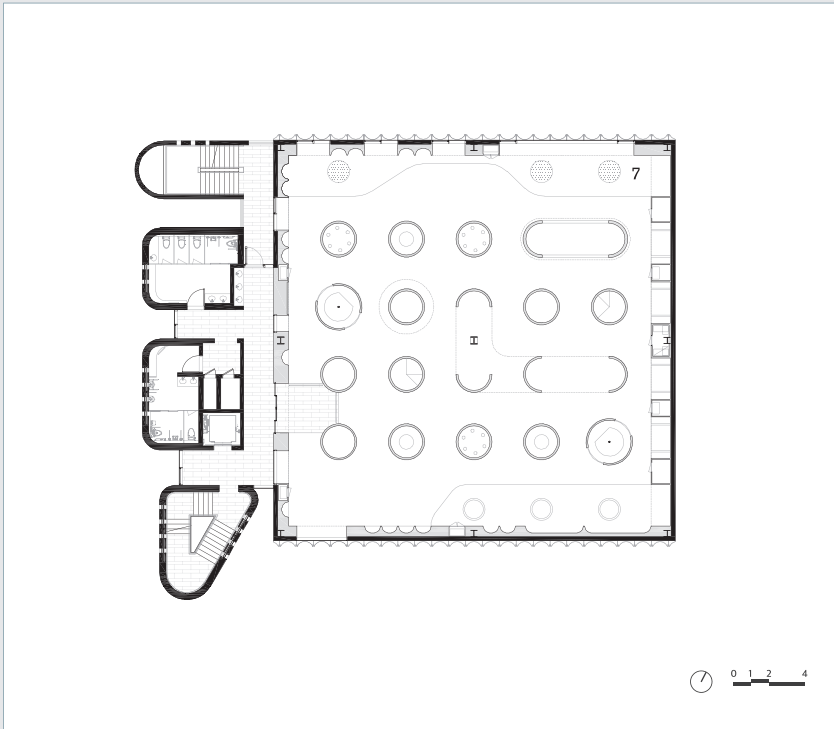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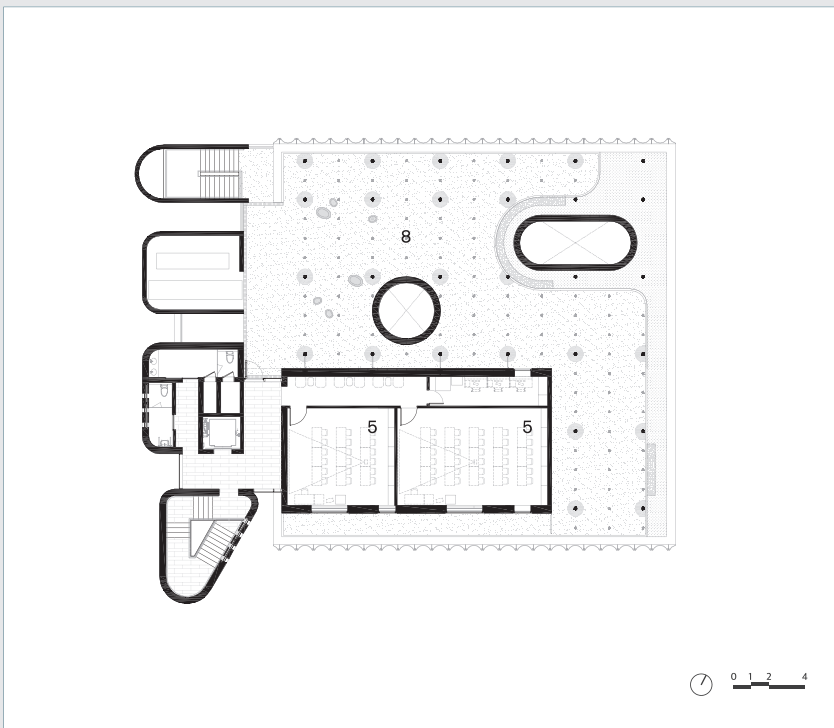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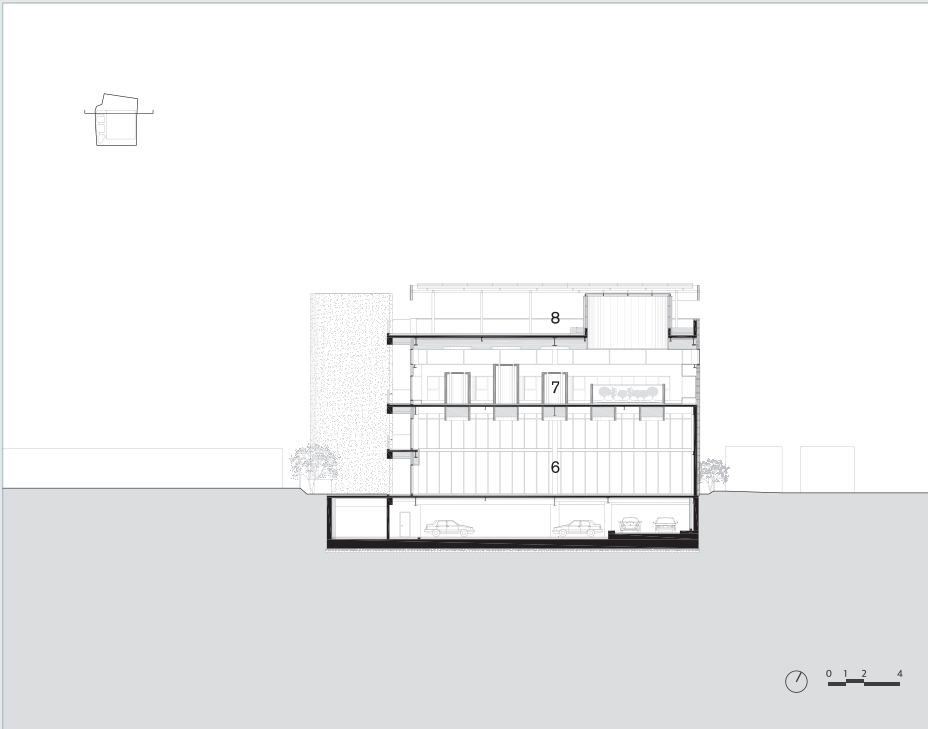
### 3층 평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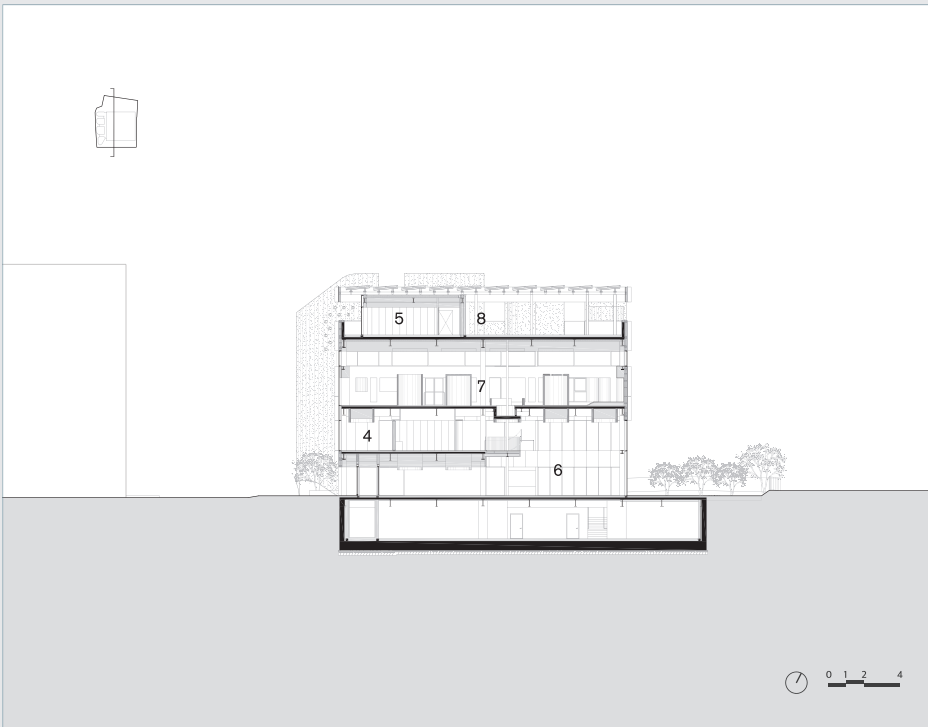
### 4층 평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단면도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 1 청소년 라운지 / 플레이존
- 2 자전거 주차장
- 3 계단식 객석
- 4 워크스테이션
- 5 강의실
- 6 언더그라운드
- 7 온그라운드
- 8 오버그라운드



상 낮선 공간의 경험을 유도하는 실린더  
 중 펀그라운드 휴게공간  
 하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한 언더그라운드

### 펀그라운드: 재미, 교류, 도전

네 개의 거친 콘크리트 코어탑은 분절된 덩어리로 펀그라운드의 존재를 알린다. 매끈한 곡면 루버의 반복은 이와 대비를 이루며 얼굴을 만들고 청소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도로에서부터 실내를 거쳐 후정까지 하나의 연결체로 이어지는 광장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곳을 찾아오고 이용하게 해 주는 도시적 장치이다. 펀그라운드 진점은 기존의 청소년시설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이 주인이 되어 만들어 나가는 문화 거점 시설이자 아지트로써 건강한 교류와 즐거움이 가득한, 열린 플랫폼을 만드는 과감한 시도이다.

### 언더그라운드: 광장, 소통, 만남

이동식 계단과 함께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한 열린 거리, 교류하는 공터이다. 관통하는 듯 내려온 실린더 조명 아래 어떠한 것도 규정되지 않는 모든 가능성의 공간이자, 춤추고 뛰고 노는 생동감으로 충만한 장소이다. 아트북 서재와 라운지는 문화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영감을 주는 공간이면서 만남과 기다림이 있는 곳이다.

### 온그라운드: 자유, 아지트, 확장

하루 종일 측창과 천창을 통해 따뜻한 자연광을 쬐는다. 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20개의 실린더는 청소년 개개인의 능동적 선택을 담으면서 각기 다른 감각과 높이를 통해 새롭고 낯선 공간 경험을 유도한다. 청소년들이 정해지지 않은 동선 속에서 자신만의 아지트를 발견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해도 되는 자유와 어떤 것도 하지 않을 자유가 공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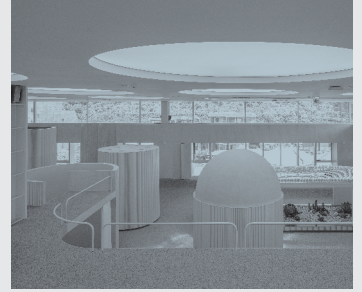
### 오버그라운드: 자연, 교감, 휴식

노란 폴리카보네이트 볼륨이 관통하는 오버그라운드는 학습공간과 외부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주변 자연과 도시를 조망하도록 하였다. 태양광 패널 캐노피가 그늘막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고, 다양한 콘크리트 벤치와 바닥 패턴이 청소년의 공간 활용을 돕고 휴식하게 해 준다.

### 청소년을 위한 공공건축

공간 경험의 축적은 개개인의 부와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건축은 좋은 공간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회적·문화적 합의와 토대를 영양분 삼아 자라난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공건축은 이런 과정을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보편타당한 공간 경험 축이다. 좋은 공공건축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구축되는 저변과 공감대가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 속에서 건축은 보다 더 나은 내일의 건축으로 진화한다. 공공건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 건축사  
12월 14일



상 정해진 동선이 없는,  
다양한 높낮이의 공간  
하 축창과 천장을 통해  
풍부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실내